

# ‘충남사회적경제의 든든한 후원자 3-프로보노’

## 권형하 공인노무사

충남사회적경제 도민기자단

김 호 성

우리 충남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지역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기업유형에 관계없이 아직은 그 규모나 기업경영방식에서 미숙한 면이 드러나기도 한다.



기업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관리와 관련해서도 인사노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거나 경험부족으로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기업경영의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충남사회적경제기업들이 인사노무 등 문제발생을 예방하고, 문제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조력을 펼치고 있는 푸른노무법인 대표 권형하 공인노무사(이하 노무사)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프로보노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권형하 노무사가 소속되어 있는 푸른노무법인은 2002년 1월 1일 설립된 인사노무 컨설팅전문 그룹으로 천안과 서산, 대전에 지사를 두고 있는 노무전문법인이다.

권형하 노무사는 대표노무사로, 충남지역의 주요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 등에서 노무 관련 자문 및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충남사회복지사협회, 전국청소년센터, 충남사회서비스원 등 복지 및 취약계층 지원 관련 기관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진행하고 있고,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는 자문위원 겸 광역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권형하 노무사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노무관련 자문위원으로 경영지원플랫폼(씨앗 : seeat : <https://seeat.cnse.kr/app/main/index>)을 구축하는데도 도움을 주었다. 인사노무 관련 기업이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영자료 촬영과 주요 자료를 제공하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인사노무 관리에 있어서 가장 많이 문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문제해결에도 적극 나서 아직은 열악한 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인사노무 관련 주요 문제에 대한 촬영과 관련하여 권형하 노무사는 “처음으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게 되어 상당히 떨렸고 좀 더 많은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려고 하다보니 생각했던 것 보다는 다양하게 설명하지 못하게 된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전문지식이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보다 많이 전파될 수 있기를 희망을 전했다.



노무 관련 전문교육(제공 : 푸른노무법인)

사회적경제영역에서의 프로보노로 활동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사회적경제영역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와 같이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기본적인 노동법은 준수하지만, 인사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

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 미력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프로보노에 참여하게 되었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고마움을 전할 때 활동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라 전하면서 자신의 전문지식을 ‘사회를 위한 나눔활동’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프로보노로서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점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게 된 사회적경제기업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어려워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노동법의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안내하여 대응방향을 제시하여 문제해결의 단초를 제공하였던 기억”이 가장 힘들면서도 보람있는 활동으로 평가하였다.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전해주고 싶은 조언에 대해서도 프로보노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은 기본적인 근로계약이나 임금 등에 대하여는 많이 준수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를 좀 더 넘어선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섬세하지 못하여 갈등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부담없이 가까운 노무사와 간단한 상담이라도 하라고 부탁드립니다.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부분도 법률의 기준에 따르지 않고 오판하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자문노무사나 무료상담 등을 자주 활용하라고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라며 문제발생의 사전예방과 문제가 확대되는데 대해서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것은 권고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기업들은 기초적인 인사관리는 잘 준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경영자들이 많은 고민하여야 할 것 같으며, 특히 권고사직, 해고 등을 행할때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는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라며 작은 실수를 커다란 문제로 만드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잊지 않았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든든한 후원자인 프로보노로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인사노무 분야에서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권형하 노무사의 향후 행보에서 그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권형하 노무사가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충남사회적경제인들에게 많은 자문과 조언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새해에도 그의 공익활동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